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 울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어 진 아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주목하여,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차별 피해경험, 울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24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성차별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반복된 경험은 그 자체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증가된 울분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상에서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20대 여성의 잠재적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한 복합적 감정인 울분을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20대 여성, 성차별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울분

* 본 연구는 어진아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신소라, 정의롭, 2015).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사이버폭력은 가해율과 피해율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중에서도 20대는 가해와 피해 모두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집단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남녀 모두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7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남성의 경우 가해율이 약 2배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의 가해율은 2.5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사이버공간 상에서 여성의 공격적 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악화하고 있는 성별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SNS 등 온라인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이슈 상위 열 개 중 여섯 개가 성별 이슈였으며,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남성과 여성은 온라인상에서 각 성별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총동적으로 서로에 대한 공격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성폭력 고발 미투운동 등의 사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적인 성차별에 대해서도 참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에서 남성들의 혐오 발언을 미러링(mirroring)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조주현, 2019).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범죄피해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대우, 지각된 차별 같

은 부정적 경험은 개인의 긴장을 유발하며, 긴장의 결과로서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정정서를 경험한 개인은 이러한 부정정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복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해행동을 하게 된다(Agnew, 2001).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 속성으로 인한 차별 피해경험은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Khan, Ilcisin, & Saxton, 2017). 차별 피해 경험과 일탈행동, 범죄행동의 정적 관계 역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는데(Martin et al., 2010; Stewart & Simons, 2006),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과 성인기에 강도, 공격 등 폭력적 행동으로 체포될 가능성 간의 정적 상관이 보고된 바 있다(McCord & Ensminger, 2003).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를 경험하는 집단인 20대 중에서도 여성의 가해 경험에 주목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20대 여성에게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성차별 피해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여성은 32.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성(22.1%)보다 높은 전반적 차별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차별 사유에서는 성(性)에 대한 차별이 48.9%로 가장 높았으나 성별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여성은 71.0%, 남성은 16.4%로 4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 때 연령이 낮을수록 성차별 피해경험 비율이 높아 19세 및 20대에서는 66.1%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본 연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차별 피해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많은 긴장을 경험할 20대 여성에 주

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차별은 성별을 기반으로 발생하며, 단순히 개인 간에 성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뿐만 아니라 제도적 및 구조적 수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Klonoff & Landrine, 1995). 성차별이라는 불공정한 대우는 그 자체로 부정적 자극에 해당하며, 개인의 안전감을 저하시켜 긍정적 자극 또한 감소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긴장’의 정의에 부합한다(Ajayi, 2006). 성차별 피해경험으로 인한 긴장은 우울이나 불안, 분노와 같은 다양한 부정정서를 불러일으킨다(Nadal & Haynes, 2012; Sue, 2010). 이처럼 개인이 강한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나 단서를 간과하기 쉽다(Sue, 2010). 따라서 긴장을 유발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하며, 복수나 보복에 대한 동기와 함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잠재적 부정적 결과를 과소평가하게 됨에 따라 일탈이나 비행 행동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Ganem, 2010). 실제로 Patchin과 Hinduja(2011)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긴장과 그로 인해 촉발된 좌절감이 사이버불링의 주요 동기이자 원인으로 나타났다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의 유발요인 중 일상적인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홍영수, 김동기, 2011). 일상적 긴장과 좌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성차별 피해경험은 20대 여성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 피해경험은 개인의 소수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한 경험이며, 개인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박탈감이나 무력감 또한 일으킬 수 있다. 특히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연령과 성별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인해 더욱 대응하기 어렵다. 성인진입기 또는 사회초년생 시기에 이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연장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위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에서, 20대 여성은 자신의 부당한 경험에 직접 맞서거나 그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기 어렵다. 게다가 성차별에 대응하여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자 할 때, 여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며 순종해야 한다는 성역할 기대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심미혜, Endo, 2013). 실제로 성차별에 대응한 여성은 인종차별에 대응한 흑인에 비하여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손은주, 김성진, 최인철, 2017). 이에 많은 여성이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뒤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나 불이익을 염려하여 대응하지 않기를 선택하며(국가인권위원회, 2020),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자기침묵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Hurst & Beesley, 2013). 이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타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억울함, 분노 또는 적대감을 보이며(Landry & Mercurio,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일상적 성차별 피해 경험은 자기침묵과 분노억제를 통해 전위된 공격성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손지빈, 20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 피해경험으로 인한 부정정서로는 단순히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단일한 감정을 살펴보는 것 보다는 불공정한 경험과 관련된 복합정서인 울분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 울분은 부당

하고 불공정한 사건에 대한 분노, 모욕감과 복수심, 무력감과 절망감, 우울을 느끼는 복합적 정서 상태를 가리킨다(Linden, 2003). 울분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건을 경험한 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김석호, 2019), Linden(2003)이 제안한 외상후울분장애(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다. 외상후울분장애는 아직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정식으로 등록된 장애는 아니지만,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불공정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이승훈 외, 2017). 울분이 극심해지는 경우 외상 후 울분장애로 발전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울분은 충동성과 공격성을 동반할 수 있다(Conner & Weisman, 2011). 국내 연구 결과, 울분 점수는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에서 더 높았으며, 울분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4점 만점에 2.79점을 기록한 청년 여성(만 19~34세)이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즉,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피해경험은 사회구조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적절히 대응하기가 특히 어렵기에 이러한 부당함으로 인한 울분을 증가시키고, 보복이나 이러한 부정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로서의 일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Agnew, 2001). 그런데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나 실질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차별에 직접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차별 피해경험으로 인한 부정정서와 공격성은 그 상황에서 바로 표출되지 않고 억제되기 쉽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성차별에 대한 맞대응이 어려워 억제되어 오던 여성의 공격성은 익명

성으로 인한 탈억제가 쉽게 일어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향해 사이버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Bushman & Huesmann, 2010; Suler, 2004).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Suler(2004)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의 행동은 실제의 자기 삶 및 자신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의사소통의 비동시성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받지 못하며,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지위와 권위의 영향력이 최소화되어 누구라도 가해 행동을 하기가 쉬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 가해행위에 대한 보복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된다(김정은, 최은희, 2012). 따라서, 온라인 환경은 개인에게 탈억제를 일으켜 오프라인에서라면 하기 힘들었을 무례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든다(Suler, 2004). 즉, 성차별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일상경험으로부터 촉발된 긴장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 심각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박예술, 2015; 이성식, 2011; 이정환, 이성식, 2014; Kowalski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ushman과 Huesmann(2010)의 선행연구와 같이 성차별 피해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20대 여성의 긴장이 탈억제가 일어나기 쉬운 온라인 공간상에서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향해 더 쉽게 표출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복합정서인 울분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가? 측정도구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성인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전 연구 참가 동의를 구하였는데, 연구의 잠재적 이득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응답과정에서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불편감이 느껴질 경우 언제든지 중도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한 사례가 지급되었다. 수집된 298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 및 표준화 점수(Z-score) 변환 시 절댓값 3이 넘거나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값이 .001 미만인 응답을 제외하고(Tabachnick & Fidell, 2007), 총 249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범위는 만 20~29세였으며($M=23.08$ 세, $SD=2.37$), 참여자의 직업은 학생 171명(68.7%)이 가장 많았고, 직장인 36명(14.5%), 무직 22명(8.8%) 등을 포함하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43명(57.4%)과 대학교 졸업 87명(34.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들이 보고한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하부터 상까지 5개의 범주 중에서 중 125명(50.2%), 중상 63명(35.3%), 중하 42명(16.9%)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정소미(2011)가 사이버폭력 측정을 위해 개발한 문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1)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문항을 활용, 박정숙(201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사이버폭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예: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중 주관식인 15번(가해행동의 이유)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케 하며, 높은 점수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15번 문항은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측정오차를 줄여 안정적인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각 변인들을 문항묶음화 하였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Little, Rhemtulla, Gibson, 그리고 Schoemann(2013)의 요인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간명성과 추정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세 개를 최소한의 문항 묶음으로 본다는 김수영(2016)의 의견을 고려하여 세 개로 문항묶음하였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박정숙(2016)의 대학생 연구에서 .94,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사이의 높은 상관을 고려하여(Kowalski et al., 2014),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성차별 피해경험의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측정

하기 위하여 앞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박정숙(2016)의 사이버폭력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되 피해경험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12, 13, 14번 문항은 제외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예: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케 하며, 높은 점수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본 연구에서 .84이었다.

성차별 피해경험

Klonoff와 Landrine(1995)이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및 타당화하고, 김은하, 김수용, 김도연, 박한솔, 김지수(2017)가 한국어로 변환한 성차별 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네 개의 하위척도, 즉, 성차별적 비하를 당한 경험과 그 결과 8문항(예: 여자라는 이유로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언어적·신체적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의 성차별 피해 경험 6문항(예: 여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피해 경험 3문항(예: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친구, 남편 또는 다른 중요한 남자들[예: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일터에서의 성차별 피해 경험 3문항(예: 여자라는 이유로 고용주, 상사, 또는 슈퍼바이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으로 구성된다(총 20문항).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 6: 거의 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로 높은 총점은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더 빈번히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문항묶음을 위해 원 척도

의 하위척도에 따라 내용 알고리즘을 실시하여 성차별적 비하를 당한 경험과 그 결과,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의 성차별 피해경험,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피해경험, 일터에서의 성차별 피해경험으로 총 네 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김은하(2018)의 성인 여성 연구에서 .96,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울분

Linden 등(2009)의 외상후울분장애 척도(The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PTED Scale)를 Shin 등(201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절단점을 기준으로 외상후울분장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보이는 울분 증상의 심각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체 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만성적인 울분을 보이는 상태로 임상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중등도 이상의 울분을 보이는 심한 장애 상태를 선별하기 위한 절단점은 2.5점으로 제안된 바 있다(Linden, Baumann, Lieberei, & Rotter, 2009).

본 척도는 두 개 하위요인, 즉, 응답자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수준을 측정하는 14 문항(예: 내 정신건강에 눈에 띄게 심하고 지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과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복수에 대한 사고를 측정하는 5문항(예: 감정에 상처를 주고 상당한 정도의 울분을 느끼게 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 척도(0: 전혀 아니다 ~ 4: 아주 많이 그렇다)로,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울분을 의미한다.

한국판 척도를 표준화한 연구자 또한 하위

요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신철민, 2012), 이에 최근 연구에서 단일 요인 척도로 주로 취급된 점(이승훈 외, 2017)을 고려하여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문항묶음을 실시하였고, 세 개의 측정변인을 도출하였다. 신철민(2012)의 성인 연구에서 한국판 PTED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 본 연구에서는 .94 였다.

자료분석

SPSS 25.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이어서 M-plus 7.0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이 가정된다는 Finch, West와 MacKinnon(1997)의 가정을 만족했다.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r=.51, p<.01$), 성차별 피해경험($r=.21, p<.01$), 울분($r=.28,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차별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r=.32, p<.01$), 울분($r=.42, p<.01$)과 정적 상관, 울분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r=.32, p<.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측정변인 간 상관 역시 모두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는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측정변인들이 성차별 피해경험 요인 1(성차별적 비하와 그 결과, $r=.13, \sim .19, p<.05$)과 2(가깝지 않은 관계에서의 성차별, $r=.15 \sim .27, p<.05$)와만 상관이 유의했던 것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결 과

측정모형의 검증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38 \sim 1.69$, 첨도는 $-.32 \sim 2.72$ 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이 가정된다는 Finch 등(1997)의 가정을 만족시켰다. 다음으로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249)

| | 가능한 점수범위 | 실제 점수범위 | 평균점수 M(SD) | 왜도 | 첨도 |
|------------|-------------|------------|---------------|------|------|
|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 1-5 | 1-2.5 | 1.40(.39) | 1.01 | .26 |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1-5 | 1-3.45 | 1.72(.67) | .89 | -.11 |
| 성차별 피해경험 | 1-6 | 1.05-4.8 | 2.59(.84) | .45 | -.38 |
| 울분 | 0-4 | 0-3.84 | 2.17(.82) | -.31 | -.26 |

표 2.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N=249)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1. 가해 행동1 | 1 | | | | | | | | | | | | | |
| 사이버폭력 | | | | | | | | | | | | | | |
| 2. 가해 행동2 | .66** | 1 | | | | | | | | | | | | |
| 가해 행동 | | | | | | | | | | | | | | |
| 3. 가해 행동3 | .54** | .56** | 1 | | | | | | | | | | | |
| 4. (전체) | .86** | .89** | .79** | 1 | | | | | | | | | | |
| 5.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45** | .38** | .48** | .51** | 1 | | | | | | | | | |
| 6. 성차별적 비하/결과 | .19** | .13* | .14* | .18** | .26** | 1 | | | | | | | | |
| 7. 가감지 않은 관계 | .22** | .15* | .27** | .24** | .32** | .74** | 1 | | | | | | | |
| 성차별 | | | | | | | | | | | | | | |
| 8. 가까운 관계 | .09 | .16* | .14* | .15* | .25** | .65** | .60** | 1 | | | | | | |
| 9. 일터 | .07 | .05 | .13* | .09 | .31** | .61** | .74** | .48** | 1 | | | | | |
| 10. (전체) | .19** | .15* | .20** | .24** | .32** | .94** | .89** | .77** | .76** | 1 | | | | |
| 11. 울분1 | .24** | .20** | .18** | .25** | .26** | .39** | .39** | .30** | .32** | .42** | 1 | | | |
| 12. 울분2 | .25** | .19** | .21** | .26** | .31** | .36** | .36** | .28** | .33** | .39** | .83** | 1 | | |
| 13. 울분3 | .26** | .25** | .18** | .28** | .33** | .32** | .34** | .26** | .31** | .36** | .72** | .84** | 1 | |
| 14. (전체) | .27** | .23** | .21** | .30** | .32** | .38** | .39** | .30** | .35** | .44** | .92** | .95** | .91** | 1 |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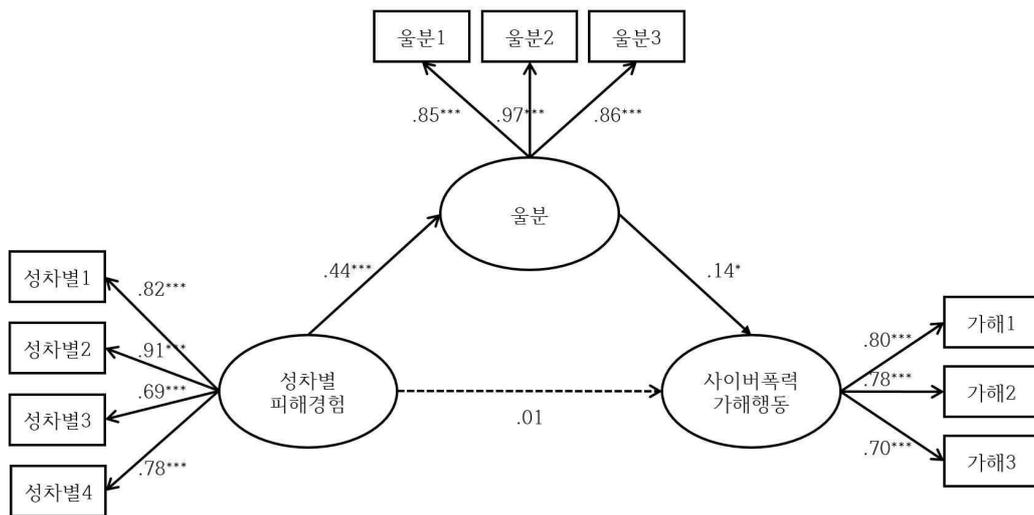
Anderson과 Gervig(1988)의 2단계 모형화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chi^2(32)=71.604$ ($p<.001$)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나 다른 근사적합도 지수들에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여(CFI=.973, SRMR=.034, RMSEA=.071[90% CI: .049-.092]) 측정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이면 수렴 타당도에 문제가 없다는 Nunnally와 Bernstein(1994)의 기준, 변인 간 상관관계수가 .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Kline(2011)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검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60)=137.593$ ($p<.0001$)으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했

나, 다른 근사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CFI=.960, SRMR=.060, RMSEA=.072[90% CI: .056-.088])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구조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도 검정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차별 피해경험에서 울분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여($\beta=.435$, $p<.001$), 성차별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울분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울분에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또한 유의하였으며($\beta=.140$, $p<.05$), 이는 높은 수준의 울분을 가지는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모형이 울분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각각 19.6%, 33.9% 였다.



* $p<.05$ ** $p<.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이며,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되었음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매개효과 검증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스트래핑(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원자료($N=249$)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검증 결과, 울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간접효과: $B=.060$, $p<.01$, 95% bootstrapping CI: 0.001-0.046).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20대 여성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기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만성적 긴장이 다양한 부정정서를 초래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탈행동이 빈번해질 수 있으며(Agnew, 2001),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으로 억제된 분노가 촉발 자극을 통해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Miller et al., 2003)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피해 경험으로 인한 여성들의 울분이 익명성으로 인해 탈억제가 일어나기 쉬운 온라인상에서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향해 더 쉽게 공격적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폭력 피해경험(Kowalski et al., 2014)을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구조모형 분석 결과, 울분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방식으로 불공정

한 대우를 받는 경험은 그 자체로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증가된 울분을 통해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성차별 피해경험은 불공정한 대우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며 좌절감을 초래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 특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지각된 위협이나 여성에게 기대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하는 현실로 인해 분노와 억울함, 좌절감과 무력감 등 복합적 정서인 울분이 쌓이면서 결국 사이버 공간상에서 직접 대면 상황에서라면 하지 않았을 공격적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이버폭력 가해와 오프라인에서의 폭력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므로(Kowalski et al., 2014) 이들이 실제 대면상황에서도 타인을 향한 공격 행동을 더 쉽게 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여러 제약으로 성차별에 대한 맞대응이 쉽지 않은 여성들이 온라인 공간의 여러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공격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사이버공간 상에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부당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울분을 쌓게 될 경우,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힘이 비가시화되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더 쉽게 공격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의 울분 점수는 평균 2.17점으로, 울분 척도의 절단점인 1.6점을 넘

어 임상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만성적인 울분 상태로(Linden, Baumann, Lieberei, & Rotter, 2009) 성차별 피해경험을 보고하는 20대 여성이라면 반드시 울분의 정도와 이에 대한 이들의 대처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 20대 여성의 잠재적 사이버폭력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차별로 인한 울분을 줄이는 것에 일차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 피해경험은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낳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으로 울분을 일으키며, 사건 직후 개인은 부정적 경험에 대한 침습적 반추를 경험한다(고한석, 한창수, 채정호, 2014). 그런데 침습적 반추와 달리 의도적 반추는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목적성이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여 수정된 삶의 이야기(narrative)를 가지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 & Reeve, 2012). 마찬가지로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에 따른 울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지적 환경에서 의도적 반추를 통해 오랜 기간의 반복된 부당한 경험과 그로 인한 울분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달시킬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 접근 외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적인 성차별과 이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차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적, 제도적 문제들을 점검하여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적절한 대처를 가능케 하는 지원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차별 피해경험에 주

목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부당한 피해를 경험한 개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폭력의 악순환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으로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 세대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성차별 피해경험에 주목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20대 여성들의 성차별 피해경험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들이 경험한 성차별 피해경험은 6점 척도 중 평균 2.59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들이 경험하는 울분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성차별 피해경험이 두드러지는 여성들의 자료를 포함하여 변인 간 관계를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대가 아닌 다른 연령의 여성 집단에서도 변인 간의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하여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보고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수준은 평균 1.4점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수준이 훨씬 높은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추후 연구는 이를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이 어떻게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제도적, 구조적 수준에서의 성차별 측면에서 여성만큼 피해를 경험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나(국가인권위원회, 2017) 추후연구에서는 남성이 지각하는 성차별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한석, 한창수, 채정호 (2014). 외상후유분장애의 이해. *대안불안학회지*, 10(1), 3-10.
- 국가미래연구원. (2019.04.17.). 2019 시대정신은 '공정' '안전' '민생안정' - 소셜 빅데이터 분석. <https://url.kr/3xwp91>에서 인출. (2021. 07.20.)
- 국가인권위원회 (2017). *공적영역 성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 김경은, 최은희 (2012).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59-283.
- 김보미, 이승연 (2020).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분류: 차별 대처전략 및 반응적 공격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5(3), 225-246.
- 김석호 (2019). *울분의 정치사회학: 탐색적 시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울분 콜로퀴움 발표문(2019.5.7.)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 김은하, 김수용, 김도연, 박한솔, 김지수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박정숙 (2016). *인터넷윤리 교육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인터넷윤리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손은주, 김성진, 최인철 (2017). 성차별에 대응한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333-333.
- 손지민 (2019). 20~30대 여성들의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소라, 정의롬 (2015). 청소년의 일상긴장과 인터넷 의존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9, 59-81.
- 신철민 (2012). *外傷後鬱憤障礙 尺度 한글版의 標準化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혜, Yu Mi Endo (2013). 한국인의 성역할과 정관념과 성차별의식 및 군복무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365-385.
- 이승훈, 전상원, 윤서영, 신철민, 고영훈, 김용

- 구, 윤성도, 한창수. (2017). 한국 일반인구에서 울분증상의 빈도, 인구학적 특성 및 우울증과의 연관성. *우울조울병*, 15(2), 78-84.
- 조주현 (2019).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 '위마드'의 정치 전략과 젊은 여성주체들, *페미니즘 연구*, 19(2), 147-16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 국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연구: 공정 인식에 대한 젠더 분석.
- 홍영수, 김동기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127-148.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Ajayi L. J. (2006). Multiple voices, multiple realities: Self-defined images of self among adolescent Hispanic English language learners. *Education*, 126(3), 468-48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erkowitz, L. (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3), 410-427.
- Bushman, B. J., & Huesmann, L. R. (2010). Aggression. In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Vol. 2, pp. 833-863).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onner, K. R., & Weisman, R. L. (2011). Embitterment in suicide and homicide-suicide. In M. Linden & A. Maercker (Eds.), *Embitterment. Societal, Psycholog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240-247). Berlin: Springer.
- Finch, J. F., West, S. G., & MacKinnon, D. P. (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4(2), 87-107.
- Ganem, N. M. (2010). The role of negative emotion in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2), 167-185.
- Hinduja, S., & Patchin, J. (2009).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cyberbully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urst, R. J., & Beesley, D. (2013). Perceived sexism, self-silenc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llege women. *Sex Roles*, 68(5-6), 311-320.
- Khan, M., Ilcisin, M. & Saxton, K. (2017). Multifactorial discrimination as a fundamental cause of mental health inequities.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6(43).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In M. Williams & W. Paul Vogt (Eds.), *The Sage handbook of innovations in soci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0.

- Kowalski, R. M., Giumetti, G. W., Schroeder, A. N., & Lattanner, M. R. (2014). Bully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140*(4), 1073-1137.
- Landry, L. J., & Mercurio, A. E. (2009). Discrimination and women's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control. *Sex Roles, 61*(3-4), 192-203.
- Linden M. (2003).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2*, 195-202.
- Linden, M., Baumann, K., Lieberei, B., & Rotter, M. (2009). The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 Rating Scale (PTED Scal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16*, 139-147.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McCord, J., & Ensminger, M. (2003). Raci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D. F. Hawkins (Ed.), *Violent crime: Assessing race and ethnic differences* (pp. 319-330).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M. J., McCarthy, B., Conger, R. D., Gibbons, F. X., Simons, R. L., Cutrona, C. E., & Brody, G. H. (2010). The enduring significance of racism: Discrimination and delinquency among Black American yout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3), 662-676.
- Nadal, K. L., & Haynes, K. (2012). The effects of sexism, gender microaggressions,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on women'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In P. K. Lundberg-Love, K. L. Nadal, & M. A. Paludi (Eds.), *Women and mental disorders* (pp. 87-101). Praeger/ABC-CLIO.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logical theory*. New York: MacGraw-Hill.
-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43*(2), 727-751.
- Shelton, J. N., Richeson, J. A., Salvatore, J., & Hill, D. M. (2006). Silence is not golden. In S. Levin, & C. van Laar (Eds.), *Stigma and group inequality: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65-8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ahwah, NJ.
- Shin C, Han C, Linden M, Chae J, Ko Y, Kim Y, et al. (2012).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Psychiatry Investigation, 9*(4), 368-372.
- Stewart, E. A., & Simons, R. L. (2006). Structure and culture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 violence: A partial test of the code of the street thesis. *Justice Quarterly, 23*, 1-33.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Wiley.
- Suler, J. (2004).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 Behavior, 7*(3), 321-326.
- Tabachnick B. G.,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Boston: Pearson

Education.
Triplett, K. N., Tedeschi, R. G., Cann, A.,
Calhoun, L. G., & Reeve, C. L. (2012).
Posttraumatic growth,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response to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4), 400-410.

1차원고접수 : 2021. 11. 09.

심사통과접수 : 2021. 12. 16.

최종원고접수 : 2021. 12. 30.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embitterment, and cyber violence of women in their 20s

Uh, Jin-a

Lee, Seung-yeon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bitterment in the relations between victim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cyber violence of women in their 20s. For this purpos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online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commonly used by female adults. The self-report data of 249 participants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that victim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yber violence;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embittermen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cyber violence. In other words, although womens' experience of receiving unfair treatment due to their gender status did not predict the perpetration of cyber violence by itself, it contributed to the perpetration of cyber violence through increased embitterment.

Key words : Women in Their 20s, Gender Discrimination, Cyber Violence, Embitterment